

이 할머니들이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여성들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낮은 목소리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이선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무국

1991년 저는 기생관광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요정에서 일하는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그 여성이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돌아가신 어머니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였다는 것을…….(감독 변영주)

낮은 목소리 2

HABITUAL SADNESS

감독 변영주

일본 영화 제작사 닥스(DAX)와 한국 영화 제작사 길에서 제작

제작 이태영외채작소 보인



여성이 만들어 낸 여성의 수난사

“살아온 얘기를 다 하자면 소설책 몇권은 쓰기도 남을 거다”

지금은 돌아가고 안계신 제 할머니께서 살아 계실 때 늘 하시던 얘기고, 지금은 제 어머니가 하고 계신 얘기입니다. 무슨 할말이 그리도 많은지 우리나라 여성들 대부분은 소설책 몇 권씩의 사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많은 한들 중에 몇분 할머니들의 얘기가 소설이 아닌 영화 두 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변영주라는 씩씩한 여성감독이 만들어 낸 이 영화의 제목은 ‘낮은 목소리-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2’입니다. ‘낮은 목소리’는 2차 세계대전때 일본군에게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던 ‘정신대’ 할머니들의 얘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영화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나눔의 집에 계시는 할머니들의 얘기고 하나는 중국 호북성 무한에 살고 있는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간 얘기입니다. 영화의 형식도 감독이 할머니들과 함께 생활하며 옆에서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는 식으로 뚜렷한 줄거리나 전문배우가 없는 기록영화입니다.

“김순덕, 이영숙, 강덕경, 송판임, 박옥련, 박두리, 김학순, 윤정옥, 하근자, 윤두리…….”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소박

한 이 이름들이 담고 있는 사연은 어마어마합니다. ‘여성문제’, ‘전쟁문제’, ‘민족문제’, ‘제국주의와 식민지문제’……. 어려운 이론서이나 나올 것 같은 이렇듯 거창한 말들을 온몸으로 겪어낸 할머니들의 얘기는 그야말로 눈물 겹습니다.

정신대 할머니들의 힘겨운 삶과 투쟁

서울 혜화동 ‘나눔의 집’(지금은 경기도 광주로 이사했습니다)에는 과거 위안부 생활을 했던 할머니 여섯 분이 모여 삽니다. 자식이 있거나 옛날에 남편이 있었던 분도 있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고 할머니들끼리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분들은 뜻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그림과 한글공부를 하고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합니다.

영화도 98년 12월 23일 100차 수요시위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할머니들 몇 분밖에 없는 초라한 시위대, 구호소리가 그냥 묻혀버릴 만큼 시끄러운 소음, 바쁜 발걸음과 무관심들이 오늘 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나타내는 것만 같아 부끄럽습니다.

“일본정부는 진정으로 사과하고 정당한 배상을 하라”

70세 80세 이렇게 나이를 드신 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번도 거르지 않고 똑같은 구호를 외칩니다. 이 늙고 병든 할머니들을 가로막고 일본 대사관을 보호해



주는 것은 기가 막히게도 한국의 경찰들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 할 일을 할머니들이 대신하고 있는데도 도움은 못 줄망정 딱 막아서는 모습을 보니 울화통이 터 집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보아야 하는 건지…….

시위를 마친 할머니들은 다시 나눔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나눔의 집은 불교단체의 도움으로 폐화동에 어렵게 구한 조그만 한옥집입니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고 노인들이 살기에 여러가지로 힘든 곳이지만 할머니들에게는 그 어떤 곳보다 소중한 집입니다. 같은 일을 겪었고 지금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이 피붙이보다 더 애뜻한 정으로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곳 나눔의 집에는 여섯 명의 할머니가 삽니다. 감독은 이 할머니들에게 이것 저것 작은 일상사들을 물어보며 접근합니다.

목숨을 버리더라도 정조는 지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자란 순박한 조선의 여인이 한번도 아닌 수십백년을 그것도 총을 든 남의 나라 군대에게 무참히 유린당한 과거를 가지고 살아야 했던 어려운 직접 당한 사람이 아니고는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 아픔 때문에 할머니들은 이 낯설고 칠 모르는 여성 감독에게 결코 입과 마음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화에서 보이는 밥먹고 일하고 그림 그리고 얘기하고 싸우기도 하는 할머니들의 자연스러운 모습

한 할머니는 '웃도 싫고 가족도 다 필요없다면서 카메라 치우라'고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보는 사람이 무안해집니다. 지켜보는 자의 아픔과 겪은 자의 아픔이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은, 카메라가 할머니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때까지 진득하게 포기하지 않고 곁에 머문 감독과 제작진의 씩씩한 노력과 사명감 덕분입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자연스럽게 생활의 익숙한 부분이 된 뒤에도 '그 이야기'만 할려면 할머니들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남부끄러워서', '챙피해서', '배운 게 없어서', '아무 것도 몰라서'……. 일방적인 피해자이고 이제는 온세상에 대고 얘기하고 보상도 받지는 마당인데도 할머니들은 여전히 부끄러워하고 아파합니다. 한 할머니는 '웃도 싫고 가족도 다 필요없다면서 카메라 치우라'고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보는 사람이 무안해집니다. 지켜보는 자의 아픔과 겪은 자의 아픔이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조선인 위안부로 산다는 것

겪은 자의 아픔은 한국에만 있지 않습니다. 중국 호북성 무한은 옛날 일본군 해군 부대가 머물면서 위안소가 설치된 곳입니

다. 그 곳에는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하다가, 일본군이 전쟁에 지고 도망가면서 버리고 간 한국인 할머니들이 살고 있습니다. 더럽혀진 몸으로 차마 고향에 돌아가지 못한 할머니들은 자기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애국가'와 '아리랑'을 기억하고 '타향살이' 첫대목만 부를래도 울먹거립니다. '나이가 너무 어려 남자를 받을 수 없자 일본군이 성기를 칼로 찢어버렸다'는 할머니의 증언은 처참하고 기가 막힙니다. 그런 상처만을 준 힘없는 조국이 건만 할머니들은 죽기 전에 고향인 조선땅에 한번 가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감독 일행에게 몇번이고 몇번이고 부탁합니다. 꼭 죽기 전에 고향땅을 보게 해달라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하소연 한번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전만 그래도 고국땅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나눔의 집 할머니들은 이분들보다 나은 것이지.

우리 딸들만큼은 당당하게

영화의 막바지는 1994년 12월 31일

‘나눔의 집’ 송년회입니다. 꾸밈지게 차려진 술상 앞에서 할머니들은 술먹고 노래부르고 춤도 추면서 즐겁게 웃기도 합니다. 한번도 자르지 않고 길게 보여주는 이 장면은 지금까지 한 시간 넘게 보여준 얘기들을 모두 모아놓은 듯합니다.

할머니들은 카메라에 대고 자연스럽게 세상 욕도 하고, 살아온 년두리도 하고, 우스개소리도 합니다. 정신대 할머니들 중 처음부터 세상에 드러내고 투쟁하는 것에 제일 적극적이었고 일본군의 만행이나 소녀적 꿈을 그림으로 그릴 때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이셨던 강덕경 할머니는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다 잠이 듭니다. 쪼그린 채 잠든 그 모습에서 문득 눈물이 납니다.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제주많은 화가가 되었을 지도 모를 할머니, 정말로 고단한 세상살이에도 웃음을 잃지 않은 할머니, 일본정부가 책임을 피하려고 내놓은 정부차원의 배상이 아닌 민간인 위로금도 끝까지 받지 않으셨던 할머니……. 지금 강덕경 할머니는 세상에 없습시다. 폐암 선고 받고 투병생활을 하시면서 할머니는 당신이 죽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화면에 담아달라고 부탁하셨고 그 부탁은 이제 ‘낮은 목소리 2’내가 다시 세상을 바라볼 때로 만들어져 세상에 나옵니다.

늙고 병들고 의지할 가족도 없는 할머니들이 큰 돈을 마다하기가 힘들셨을테고 그 돈 믿어서도 누가 뭐라 할 수도 없을 테지만 김순덕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 그 분들

이 무엇때문에 수치심과 고통을 무릅쓰고 이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지 알게 됩니다.

“저 일본 사람들이 또 무신 전생을 일으켜서 우리 딸들한테 나쁘게 안 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없는 일이라꼬,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들이 아주 명백하게 똑똑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제 뜻과 상관없이 휘말려 들어간 역사속에서 한 여성으로 한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당한 초라한 할머니가 어느 여성운동가나 인권운동가보다 더 정확히 세상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바로잡겠다고 싸우실 때, 나는, 우리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렇게 ‘낮은 목소리’로 묻는 듯, 영화는 온통 주글주글 주름잡힌,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살아온’ 한 늙은 여자의 벌거벗은 몸을 아주 천천히 보여주면서 막을 내립니다. 이승화나 젓소부인의 벗은 몸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그 몸을 바라본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식민지의 아픈 역사를 온전히 치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쟁터가 아닌 생활 곳곳에서 또 다른 종류의 강간과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에게도 그 주름진 나신을 보는 건 고통입니다.

‘너는 내가 전쟁터에서 하루에 수십놈의 일본군에게 당한 걸 아느냐고’

‘너는 내가 아물지도 않은 몸으로 남자를 만기 위해 성기를 찢긴 걸 아느냐고’

‘너는 내가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이를 악물 때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느냐고’



강역권 할머니의 강연이, 할머니의 부채이 낫은 목소리'를 만들어 냈다.

너는 내가 수치를 무릅쓰고 일본대사 관 앞에서 싸울 때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않았느냐고'

너는 니가 겪지 않은 일이어서 너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았느냐고'

너는 풍돈을 내면서 내 아픔을 다 안것처럼 떠들지 않았느냐고'

너는 우리 중 누군가가 일본 민간인들의 돈을 받았다고 욕하지는 않았느냐고'

너는 지금 전쟁, 폭력, 강간, 식민지 이런 말들에서 니가 진정 자유롭다고 생각하느냐고' 켜켜이 쌓이고 늘어진 주름살 하

나하나가 아주 낮고도 단호한 목소리 로 내게 묻는 듯 합니다.

“여기 우리 목소리를 들어보라고, 너는 지금 내발을 듣고 있느냐고!”

끝나지 않은 고통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나 평론가들은 이 영화를 여성영화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정신대 문제를 여성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영화라는 말에 선뜻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습니다.

나라 잃은 민족의 설움과 아픔을 가장 뼈아프게 겪는 것은 그 나라에서 제일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민족구성원 가운데서도 가장 약자인 여성들은 특이나 정신대와 같이 이중 삼중의 폭력과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약한 나라의 여성, 특히 강대국에게 지배받은 식민지라는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아시아 여성의 처참한 삶은, 남성만이 최고였던 조선이라는 봉건적인 사회에서 받아들인 고통에다 식민지를 조국으로 둔 백성이 감내해야 되는 고통까지 덧씌워져, 침략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던 한국의 정신대 할머니들에게서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문제인 것은, 정신대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지금도 이 땅 곳곳에서는 그 아픈 삶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군 종군위안부' 라는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는 '기지촌 윤락여성'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비군위안부'가 자리잡았습니다. 조선총독부가 혈렸지만 수도 서울 한복판에는 여전히 미국의 군대가 거대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쓸만한 땅을 모두 차지한 채 기지촌 윤락 여성을 수없이 때리고 갈로 찌르고 성기에 우산을 꽂아 죽이고, 꼬마여자애까지 가리지 않고 성폭행을 하고도 그들은 법의 심판을 피해가며 뗏뗏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습니다. 한미행정협정을 방패삼아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미군의 태도를 보면, 옛날 '도쓰케가 이찌방' (첫번째로 돌격이라

는 뜻)이라고 새긴 콘돔을 끼고 위안부 여성에게 돌격하며 사랑스러워 했던 그 일본 군들을 보는 듯 합니다.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침략군이 식민지 여성에게 가했던 잔인한 폭력을 또 다시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총독 부건물이 철거된다고 해서 민족정기가 살아나지 않듯이, 지금이라도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과 함께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하루에도 전국에서 수십건씩 일어나는 미군에 의한 각종 범죄, 그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성폭력문제를 당당한 자주권을 가진 정부로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식민사대를 살면서 겪어야 했던 그 할머니들의 아픔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되돌아 올 것입니다. 아니 이미 '미군기지 윤락여성'이나 '일본인 기생관광'이 되어 되돌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대 할머니들의 문제 해결에 여성들이 앞장서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성만의 문제로 보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이 문제는 가해자인 남성과 피해자인 여성, 군대라는 조직의 집단적이고 무감각한 폭력성, 제국주의의 파괴와 약탈, 그리고 전쟁이라는 반인간적인 광기 속에서 약자들이 당해야 하는 한없는 고통 등 모든 종류의 모순이 한데로 모아진 문제입니다. 그것은 전세계 모든 여성의 문제이면서 자주권을 빼앗긴 민족이 당할 수밖에 없는 민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제 민족의 여성이 소중한 걸 아는 민족은 결코 다른 민족의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동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내전과 국가간의 전쟁속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약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참한 폭력과 강간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동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내전과 국가간의 전쟁속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약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참한 폭력과 강간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쟁을 부추기고 무기와 군대를 투입하는 강대국의 파렴치한 범죄 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이 인류의 평등과 평화가 걸린 문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울곧게 민족의 자존을 새우고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할머니들의 '낮은 목소리'에 '당당하고 높은 목소리'로 대답할 수 있는 첫걸음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 민족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딸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영화 밖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위안부로 끌려간 여성은

총 10만명 정도라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 밝혀진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훈 할머니처럼 다른 나라에도 상당수가 살아 계실 거라고 합니다.

아시아 여성의 매춘현실을 다룬 변영주 감독의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I'에 이어 한 여성을 만나면서 시작된 '낮은 목소리-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2'는 이제 '낮은 목소리2-내가 다시 세상을 바라볼 때'로 이어지며 곧 개봉준비에 들어갑니다. '낮은 목소리2'는 변영주 감독이 5년 전 첫 만남을 가진 후 종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함께 하기로 한 할머니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있는 그분들의 현재를 역사에 남기기 위해 2년여의 기간동안 만들어졌습니다.

돈도 안되는 기록영화를 고집하는 감독과 기록영화제작소 '보임'의 식구들은 제작비를 마련하기 위해 '낮은 목소리 I'과 마찬가지로 100퍼트 회원을 모집해서 그들의 도움으로 근근히 이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100퍼트 회원이란 2분 정도 보여지는 필름 100퍼트의 촬영 현상 녹음에

필요한 10만원을 지원하는 후원회원을 팔
합니다. 지금 8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100피트 회원에 가입해서 이 영화를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막바지
작업에 드는 돈만 해도 엄청나서 계속 도
움이 필요한 형편입니다. 100피트 회원은
이 영화의 제작자로 남으면서 '영화 전대
일'에서처럼 끝머리 자막에 이름이 새겨
집니다. 한번에 돈을 다 내지 않아도 후원
의사를 미리 밝히면 (7월 5일 전까지) 접
수되는 대로 8월말 개봉예정인 영화에 이
름을 새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1'이 개봉되면서
정신대 할머니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대협(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을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 모금운동을 벌여 왔습니다.
일본정부가 민간인 위로금으로 슬쩍 넘기
려고 하는데 할머니들이 그 돈을 받는 걸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민간인 위로금을 받
지 않아도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돕자는
뜻의 모금운동입니다. 할머니들은 지금도
계속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시위를 하시
고 해화동보다 훨씬 넓고 텅밭도 있는 경
기도 광주로 나눔의 집 을 이사하셔서 농
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며 씩씩하게 살고
계십니다.

'낮은 목소리1'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신 할머니들을 저음으로 세상에 내
보였다면 '낮은 목소리2-내가 다시 세상
을 바라볼 때'는 훨씬 밝고 당당한 할머니
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카테라

도 잡고 마이크도 잡은 할머니들은 자신들
이 결코 기만하고 불쌍하게 살고 있지 않
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내가 화면에 이러
게 저렇게 나올 수 있게 찍으라며 '주분'
도 하시고 배우처럼 서툰 연기도 하신답니
다. 자신들의 요구가 얼마간의 위로금을
받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로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고 역사와 진실
을 밝히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반갑게도 민주노총의 여성위원회에서
이 영화가 개봉되면 우리 노동자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
식입니다. 영화사측에서도 노동조합의 단
제관람을 적극 환영하고 극장보다 잔 값으
로 볼 수 있게 해 준다니 많이 볼 수 있도
록 합니다. ❖

*** 100피트 회원이나 단체관람등 후원해 주
실 분들은 기복영화제작소 보임(대표: 변
영주 02-597-5364)에 연락하시면 자체
한 안내를 받을 수 있고, 곧 개봉할 낮은
목소리2 -내가 다시 세상을 바라볼 때 상
영에 관한 문의는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 김유미 02-765-2010)에 하셔
도 됩니다.**

*** 할머니들을 만나고 싶은 분은 나눔의 집
(0347-768-0064), 할머니들 돌기에 합
께 할 분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대표:
이효재 02-365-4016)로 연락하시면 됩
니다.**